

금요일에 미리보는 주간 투자전략

Weekly | 2016.6.24

주간 주식시장 리뷰

시황 김병연 (02-768-7574) / 조연주(02-768-7598)

• 금주 주식시장 리뷰

- **옐런 의장 저금리 지속 의사 시사:** 21일(현지시간) 제닛 옐런 의장은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렉시트가 글로벌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금리정책 유효하다고 언급. 이에 따라 연내 한번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 50% 이하로 하락하며 시장 안도랠리 시현
- **하반기 추경 시기 및 규모 발표일 언급:**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가경정 예산, 2017년 최저임금 계획을 발표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조~15조원 정도의 추경을 예상. 정부 추경 편성으로 자동차주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1% 가까이 상승

주간 주식시장 프리뷰

• 투자전략: 미리 진행된 안도랠리, 실적장세 기대감 확대 예상

• KOSPI 주간예상: 1,980~2,030p

- **상승요인:**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승, 브리메인에 따른 안도랠리, 미 완화적 통화정책
- **하락요인:**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부진 가능성

•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는 EU잔류가 우세:** 23일 22시(현지시간, 한국시간 기준 24일 06시) 유고브의 브렉시트 출구조사 결과는 52%로 부결(EU잔류)이 우세. 전일 이브닝 스탠더드와 포플러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 부결이 각각 4% 및 10%로 높았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브렉시트 반대 의견으로 몰린 것으로 예상
- 단기 불확실성의 해소로 금융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브렉시트가 부결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EU여타 회원국의 형평성 문제, 이민자 문제, EU각국의 국수주의 확대 등 여전히 EU관련 노이즈는 지속될 전망
- 향후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2분기 실적에 초점이 맞춰질 것. 그리스 부채 만기도래, 중국 A주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부분 편입, 6월 미 FOMC회의, 브렉시트 등 6월 예정되었던 이벤트들이 무난히 지나간 상황에서 유동성에 더해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향후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현재 KOSPI 상장사 2분기 순이익은 1분기의 26.7조원보다 낮은 25.8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 다만,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은 IT, 소재, 산업재 업종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KOSPI 전체 2분기 실적이 1분기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
- **투자전략:** 하반기 공산품 물가의 상승,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 예상보다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분기를 비롯한 하반기 기업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 불황형 흑자 패턴(매출액 감소에도 비용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에서 탈피해 탑라인 증가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IT 등을 추천

경제 Review & Preview

경제 안기태 (02-768-7205) / 김환 (02-2229-6761) / 김재승 (02-2229-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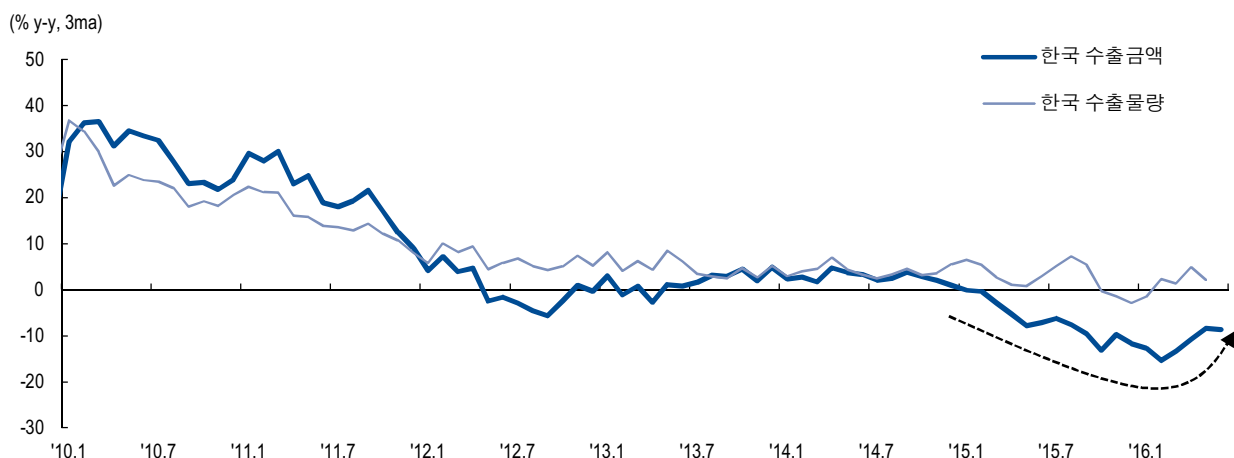
1) 주요 환율 동향 및 전망

- **한국 원화:**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관망세 높아진 가운데, 최근 영국의 EU 탈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원화는 강세. 재닛 옐런 의장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 **미국 달러화:** 미국 달러화는 약세. 브렉시트 여론조사에서 EU 잔류 지지율이 높아지자 브렉시트 우려감 낮아지며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기록한 영향.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의회 통화정책 보고에서 완화적인 금리인상 스탠스에 대한 발언을 한 점도 달러화 약세 요인
- **영국 파운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작년말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주 조 콕스 하원의원 피살 이후 브렉시트 여론조사에서 EU 잔류 지지율이 높아지며 브렉시트 우려감이 완화된 영향. 상당수의 부동산층이 실제 투표장에서는 EU 잔류에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점도 파운드화 강세 요인

2) 다음 주 매크로 전망: 한국 월말 실물지표

- **한국 6월 수출(7/1일):** 지난 6/1일~20일까지의 수출금액과 조업일수를 감안할 때, 6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9.8%씩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6월 무역수지는 약 9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 지난 5월 수출물량이 전년대비 2.7%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
- **한국 6월 소비자물가(7/1일):** 지난해 유가는 5~6월에 고점을 형성. 이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6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 이를 감안할 때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8%, 전월대비 0.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
- **한국 5월 광공업생산(6/23일):** 지난 5월 수출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던 점을 감안할 때, 5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율 각각 0.5%씩 증가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을 것으로 예상
- **중국 6월 제조업 PMI(7/1일):** 중국의 지난 6월 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50.1)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 (Bloomberg 컨센서스). 위안화 약세 및 미국 수요 개선 등은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분기 말을 앞두고 자금 경색 우려 및 일부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 발생 등이 제조업체들의 체감심리 회복을 제한했을 것으로 판단. 다만 최근 정책 당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제조업 경기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Macro Chart Snapshot: 한국 수출 금액 및 물량 증가율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중요도	Period	Previous	Consensus
6월 27일(월)				
(유) M3(% y-y)	★	5월	4.6	-
6월 28일(화)				
(미) S&P/CS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y-y)	★★	4월	5.43	-
(미) 소비자기대지수(index)	★★	6월	92.6	93.0
6월 29일(수)				
(한) BSI 제조업지수(index)	★	7월	74	-
(일) 소매판매(% y-y)	★	5월	-0.9	-1.7
(미) 개인소득(% m-m)	★★	5월	0.4	0.3
(미) 개인소비(% m-m)	★★	5월	1.0	0.3
(유) 소비자기대지수(index)	★★	6월	-7.3	-
(독) 소비자물가(% y-y)	★	6월	0.1	-
6월 30일(목)				
(한) 광공업생산(% y-y)	★★★	5월	-2.8	-
(일) 광공업생산(% m-m)	★★	5월	0.5	-0.2
(유) 소비자물가(% y-y)	★★★	6월	-0.1	-
7월 1일(금)				
(한) 소비자물가(% y-y)	★★	6월	0.8	-
(한) 수출(% y-y)	★★★	6월	-6.0	-
(일) 실업률(%)	★	5월	3.2	3.2
(일) 소비자물가(% y-y)	★★	5월	-0.3	-0.5
(중) 제조업 PMI(index)	★★★	6월	50.1	50.1
(중) Caixin 제조업 PMI(index)	★★★	6월	49.2	49.2
(미) ISM 제조업(index)	★★★	6월	51.3	51.0
(유) 실업률(%)	★	5월	10.2	-

주: 1) Consensus는 Bloomberg 기준, 날짜는 현지시간 기준

2) 별 개수는 중요도를 의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